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슈즈디자인의 특성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Deconstructive Shoes Design in Modern Fashion

김 선 아
Kim, Sun-Ah

혜천대학 코디네이션디자인계열 교수
Shoes Design Major, School of Coordination Design, Hye Chon Colleg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analysis of the deconstructive shoes design in modern fashion. Modern society is showing transitional structure which is pursuing distinction and diversity through ceaseless changes. Under these situation, various forms of shoes design are possible by reinterpretation of existing meanings through the creative and experimental attempt.

As a result, there are three characteristics of deconstructive shoes design as follows;

1. Intertextuality, in which a text is not alone, but with others, expressed as sex, texture and different styles of shoes design.
2. Différance which is a concept of the difference in time and space as being trace in shoes design.
3. Dis · De phenomenon, in which distortion and fragmentation forms occur as result of the denial of perfection in shoes design.

In these sense, deconstruction which starts from criticizing has a significant meaning by means of theoretical basis of this study. This is to say, through deconstructing general form of shoes design and developing new forms of contemporary shoes design. The trend of deconstruction in modern fashion given the new possibility of shoes design.

Key Words : Deconstruction, Shoes Design, Intertextuality, Différance, Dis · De phenomenon

I. 서론

현대의 패션은 고도로 발전한 산업의 구조와 매스미디어의 발달 속에서 차별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의상에 맞추어 다양한 슈즈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오늘날의 슈즈제품은 중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급부상하였을 뿐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감각을 표현하는 독립된 유행요소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의 혼란 속에 자신의 개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더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장르와 양식의 디자인이 서로 혼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며 슈즈디자인분야 역시 인간성의 회복 또는 자연으로의 회귀 등을 꿈꾸며 전형적인 슈즈스타일을 탈피하여 풍부한 상상력과 정신적 영감에 근거한 새로운 외적 표현의 수단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예술 및 건축 및 의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탈 모더니즘 현상은 기존 가치에 대한 해체(deconstruction)적 인식과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체주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의상과 건축의 해체주의 양식 비교 및 특성에 국한되어 패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슈즈 분야에 관한 단독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일 뿐 아니라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복귀, 탈 중심화 등의 새로운 해체적 시도들 속에서 슈즈디자인 분야에서는 이러한 해체주의적 양식이 어떠한 개념으로 표현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슈즈 디자인은 객관적인 원리나 미적 평가만으로는 설명이 불가할 정도로 다변화되어, 균형, 질서 또는 양식, 장르 및 사조 간의 경계를 허무는 해체주의적인 특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닫힌 세계에 대한 거부와 열린 사고를 추구하는 해체주의에 근거한 현대의 슈즈디자인의 표현양식이 나타나며 더욱 과감하고 자유분방한 탈 구성적이며 비형식적인 양상이 주목받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관련서적 및 선행연구, 인터넷자료등을 통해 해체주의의 일반적인 개념과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하고, 2001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의 컬렉션에 발표된 슈즈작품을 중심으로 해체주의 양식이 반영된 슈즈디자인의 미적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2000년대 슈즈 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상호 텍스트성, 차연, 탈현상(탈구성·탈중심, 불연속·분열붕괴)의 3가지 양식에 근거하여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그 표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슈즈디자인 분야의 해체주의적 양식을 응용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 개발 및 전개에 근거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배경의 연구를 위해 문헌, 선행연구와 관련 전문서적을 참고 하였고, 국, 내외

잡지나 인터넷을 통해 해체주의적인 슈즈 디자인의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II. 해체주의(Deconstruction)의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국내외 관련서적과 선행연구를 통해 해체주의의 형성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해 해체의 개념 및 해체주의의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1. 해체주의 형성배경 및 개념

‘해체’는 일반적으로 분쇄함(demolition), 몰락(breakdown), 파괴(deconstruction), 분쇄, 멸망, 공격, 폭력, 단절, 분절, 파편화(into fragment)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해체주의의 성립과정은 철학적 측면에서 1960년대 프랑스를 기점으로 등장한 구조주의의 기본적 특성을 비판하는 포스트구조주의(후기구조주의, 탈구조주의)가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주의에 대한 외면화, 이론화 및 방법론적으로 세련화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¹⁾ 구조주의(Structuralism)란 고전적인 형이상학적 명제들을 부정하고, 인간의 행위나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결정적인 구조를 지닌 일종의 의미체계를 분석하는 개념을 의미한다.²⁾

1966년 10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열렸던 국제심포지움에서 ‘인문과학의 언어예술 행위에 있어서의 구조, 기호, 그리고 유희(Structure, Sign, and Play in Discourse of the Human Science)’ 라는 논문 발표를 통해 서구 형이상학적 이론과 구조주의의 근본을 뒤흔들며 해체주의를 등장시켰다.³⁾

하버마스(Jürgen Habermas)⁴⁾의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에 의하면, 18세기 이후 헤겔(Hegel)이 주장했던 ‘절대이성’의 개념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철학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마르크스(Marx)는 탈 이성적이며 반이성적 영역의 실천을 통한 ‘총체성’의 개념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반면, 니체(F.Nietzsche)는 이성적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몰이성적, 반이성적 영역이 존재하며 이 영역이 인간의 삶에 본질적 중요성을 갖는다 하였다.

1)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의 건축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4.

최영욱·추미경·홍정화(2007), “장 폴 콜티에의 작품에 표현된 해체주의 경향,” 복식문화연구 15(2), pp.327-328.

2) 김지연(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3) 김성곤 편(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p.18

최영욱(2001), “장 폴 콜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현상,” 복식문화연구 9(4), p.576.

4) Jürgen Habermas(1994),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pp.197-224.

포스트모던으로의 진입을 이끈 선구자인 ‘니체’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계보 속에 서구 합리주의의 종말을 선언한 ‘하이데거’의 철학을 해체하고,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선봉을 일으킨 ‘데리다’와 서양 인문학의 계보학적 탐구를 통해 이성주의의 환성을 파괴한 ‘푸코’ 등으로 이어지는 해체주의는 탈 이성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는 ‘무엇이 해체주의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고 했으며, 이는 ‘해체주의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것은 해체주의가 아니다’ 라는 역설적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⁵⁾ 해체는 기존의 구조에 대해 다른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든 처음의 구조를 우회하여 그것을 지적하고 있던 제반 가치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면서 다른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작업으로서,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 소외된 타자, 차이, 역사성을 인정하였고 서구 중심의 고정된 이성 중심주의에 종말을 고하는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게 하였다.⁶⁾

이와 같은 성립배경을 통해 등장한 해체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존의 전형적인 구성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를 창조시키기 위해 등장된 철학적 배경을 가진 미의식의 하나로서 기존 서양철학의 기본이 되었던 형이상학에 반기를 들며 나타났고,⁷⁾ 해체주의의 개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파괴(Destruction)하려는 개념을 넘어 해체(Deconstruction), 즉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 내부에서 해체 또는 탈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⁸⁾ 현재의 서구철학, 문학, 역사 등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순수예술 뿐 아니라 디자인분야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미의 외적인 표현 형태인 의상분야를 비롯하여 슈즈 디자인에서도 다채롭게 표현되고 있다.

2.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모든 사조에 대한 재사고 및 재해석의 개념으로서 단순히 하나의 미적 사조로 구분 지을 수 없으며, 어떠한 일정 양식의 디자인 형태로 환원되거나 정의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지 해석적인 사고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체주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기존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디자인 접근 방법의 제시를 통해 그 가치를 발견하고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개념이라 정의 할 수 있다.

해체주의는 이분법적인 서구의 전통사상을 비판하고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며, 사

5) 김형효,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1993, p.16

6) 정용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3.

7) 김경인(2007), “해체주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현대 헤어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2), pp.732.

8) 김지연, 앞글, pp.7-9

고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함으로써 이성 중심적 태도를 지양하고, 더불어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자아와 주체를 중요시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⁹⁾ 동일성보다는 지배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져왔던 타인을 인정하며 불안정함, 불안감, 불확정성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드리는 특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사고의 사조라 하겠다.

<표 1>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연구자(연도) | 분야 |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 |
|----------------------|-------|---|
| 정영교(1991) | 건축 |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차연 |
| 이지윤(1994) | 조형 |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차연, Dis·De의 탈현상 |
| 김주영·양숙희(1997) | 의상 | 노출적 해체, 파괴적 해체, 빈곤적 해체, 분해적 해체 |
| 김지연·전혜정(1997) | 건축+의상 | 상호텍스트성(성, T.P.O, 코디네이션, 소재) 의미의 불확정성(기호화, 착장방식), 차연(시간과 공간, 흔적) Dis·De의 탈현상(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 |
| 김혜정·임영자(1998) | 건축+의상 | 상호텍스트성(성의혼합, 민족주의, 소재, 믹싱모드), 차연/흔적 Dis·De의 탈현상(탈구성, 탈중력성, 탈중심성, 불연속적표현, 이집적표현) |
| 김주현·권미정 이순자(1999) | 의상 | 상호텍스트성, 불확정성, 차연, Dis·De의 탈현상 |
| 노선옥(1999) | 메이크업 |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탈현상 |
| 이영재(2000) | 의상 | 상호텍스트성, 차연의 유희, 탈현상, 타자성의 부각 |
| 최영옥(2001) | 의상 |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차연, 탈현상 |
| 박선영·남윤자(2003) | 칼라장식 | 성의 해체성, 의미의 모호성, 다양성, 혼성모방 |
| 이재열·구자명(2005) | 메이크업 | 상호텍스트성, 차연, 불확정성, 탈현상 |
| 서경희·추태귀(2005) | 의상 | 상호텍스트성(성, T.P.O, 코디네이션, 소재), 패션과 타영역간의 상호텍스트성(애니메이션, 음악, 영화예술, 테크놀로지) |
| 김소영·이병화(2006) | 패션사진 | 상호텍스트성, 탈중심화와 장르의 해체 |
| 김경인(2007) | 헤어 | 상호텍스트성, 차연, 탈중심, 불연속과 분열붕괴 |
| 최경옥·추미경 홍정화(2007) | 의상 | 상호텍스트성, 의미의 불확정성, 탈현상, 차연 |
| 최진희(2008) | 건축 | 탈구성적, 탈중력성, 중첩성, 형태의 유희 |

<표 1>은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노선옥¹⁰⁾, 이재열·구자명¹¹⁾, 김경인¹²⁾은 미용분야에 나타난 해체주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정영

9) 윤병호 외(1992), 후기구조주의, 고려원, p.17

10) 노선옥(1999), “조형요소별로 분석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1), pp.209-229.

11) 이재열·구자명(2005),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한국의류학회지 29(3/4), pp.414-424.

12) 김경인, 앞글, pp.732-740.

교13), 이지윤14), 최진희15)는 건축, 조형분야에 대해 연구하였다. 의상분야의 논문으로는 김주영·양숙희16), 김주현·권미정·이순자17), 이영재18), 최영옥19), 박선영·남윤자20), 최경옥·추미경·홍정화21)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김지연·전혜정22), 김혜정·임영자23)는 건축과 의상을 연관시켜 해체주의를 분석하였고, 김소영·이병화24)는 패션사진에 나타난 해체적 경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3. 디자인에 표현된 해체주의 양식

디자인에 표현된 해체주의적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건축 및 의상 분야의 선행연구를 참고(표1참조)로 하여 슈즈디자인 요소에 적용시킬 수 있는 3가지의 해체주의 대표 양식을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호텍스트성

텍스트란 언어학자, 문학, 비평가, 기호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대상인 문헌 속의 글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왔다. 해체주의적 디자인은 이러한 일정한 주제로부터 의미를 이끌어내는 텍스트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그 이전에 존재해 있던 텍스트로부터 어떠한 요소를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의미들이 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26) 해체주의 패션과 건축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은 이질적 소재의 혼용과 스타일 및 이미지의

13) 정영교, 앞책.

14) 이지윤(1994), “조형주의 공간에 구성 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최진희(2008), “해체주의 건축 이론과 색채표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2(1), pp.23-36.

16) 김주영·양숙희(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8), pp.1261-1274.

17) 김주현·권미정·이순자(1999), “현대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80-98.

18)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패션에 나타나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최영옥, 앞글.

20) 박선영·남윤자(2003), “포스트모더니즘 복식 칼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 의류산업학회지 5(3), pp.227-234.

21) 최경옥·추미경·홍정화, 앞글, pp.326-338.

22) 김지연·전혜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복식 32, pp.293-312.

23) 김혜정·임영자(1998),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0, pp.137-150.

24) 김소영·이병화(2006), “패션사진에 나타난 해체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pp.35-47.

25) 김동욱(1991),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민음사, p.204.

26)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p.125.

혼용, 미술, 가구, 건축, 패션 등의 서로 다른 영역간의 혼용 및 초월 등의 양식으로 표현되어 지고 있다.

건축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은 건축이라는 하나의 텍스트의 한계를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다른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르의 혼합, 기능의 혼합 등이 방영된 중간적 장소의 건축물이 나타났다.²⁷⁾ Bernard Tschumi의 동경국립극장은 음악과 건축을 접목시켰으며 Peter Eisenman의 프랑크푸르트 생물학센터와 코랄위크는 상호텍스트성을 잘 나타낸 해체주의적 건축의 사례라 하겠다.

의상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의상 자체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해체, 고급소재와 값싼 소재의 혼용을 통한 소재의 해체, 다원적 민족주의, 모호한 T.P.O 적 용도구분, 원시적 소재와 하이테크 소재간의 믹스, 음악, 미술, 가구, 건축 등과의 교류 등이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 표현사례라 하겠다.

2) 차연

차연(Différance)이란 ‘지연하는, 연기하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개념이 도입되어 시. 공간의 초월과 수평과 수직의 대립관계의 해체, 시. 공간 개념의 해체 등을 의미함으로서 표현되어지는 형태에서도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형태 및 형태의 유희로 나타난다.²⁸⁾

건축에서의 차연은 이동거리간격, 단편 전위, 흔적, 중첩 등의 개념이 사용되며, 과거-현재-미래의 양식이 공존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연을 보인다. Site의 Paz Building은 실내의 장식을 신건물에 주출입구는 구건물에 나타냄으로서 역사적 흔적을 보여 새로운 건물이 구시대의 건물 속에서 부활하는 것처럼 디자인되어 차연의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²⁹⁾

의상디자인에 나타난 차연의 사례로는 넓고 바랜 듯하며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지룩, 거지패션, 넓고 빈곤한 청바지 등을 통해 해체적 차연을 표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3) Dis·De의 탈현상

Dis나 De를 접두어로 사용해 탈현상으로서의 해체주의 디자인 양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탈현상은 무질서, 파괴, 형태의 왜곡, 단편화, 분열, 붕괴, 불연속 등의 개념을 갖는다. 탈현상을

27) 김지연·전혜정, 앞글, p.298.

28) 김형효, 앞글, p.10-17.

김혜정·임영자, 앞글, p.140.

29) 김지연·전혜정, 앞글, p.297.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의 원리로는 크게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먼저 탈구성(Discomposition)은 철학적 해체(deconstruction)라는 개념과 유사하며, 통일성, 전체성을 만들어 내는 개념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기존의 구성 방식을 파괴하고 기하학적 형태의 역설적 구성을 취하며 형태의 왜곡과 과장을 나타내는 특징을 갖는다.³⁰⁾ 의상에 나타난 탈구성적 표현사례로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한쪽의 옷의 길이가 길거나 짧거나 생략된 것, 찢거나 오려진 형태, 솔기가 바깥으로 나와있어 안과 밖의 형태가 해체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탈중심(Decentring)은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성보다는 감성을 중요시하고, 의식보다 무의식의 세계를 강조하여 소외를 미적으로 극복시키려는 노력으로 기존 가치와 양식을 붕괴, 해체하여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탈 중심화 된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 건축에서의 탈중심과 마찬가지로 의상에 나타난 탈중심의 형태를 살펴보면 정장 재킷의 단추가 기울어져 잘못 채운 듯한 상태, 밑단이 여러 각도로 구성되거나 다이어트, 솔기, 지퍼 등이 중력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수직·수평선을 탈피하는 경우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불연속(Discontinuity)은 내·외적인 연속성의 틀을 해체하는 것으로 일체성을 부정하며 이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상에서의 불연속성은 하의가 좌우로 갈라져 색이 빨간색, 파란색 등으로 나뉘어 제작된 경우, 재킷의 좌우 디자인이 서로 확연히 다르게 된 경우, 소매나 몸판이 한쪽에만 있는 좌우불연속 의상디자인 등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분열·붕괴(Disruption)는 쪼개거나 부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되며 해체의 경향이 강한 디자인 양식이다. 의상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거나 찢어버려 과도한 노출 및 옷의 형태를 변형하는 사례로서 벨트가 있어야 할 부분에 일부러 구멍을 크게 내어 안에 착용한 벨트가 보이게 하거나 옷이 쪼개져 보이도록 일부러 슬래시를 심하게 주어 퇴폐적미의식을 드러내는 디자인 사례 등을 분열·붕괴의 양식에 적용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III. 슈즈디자인에 나타나는 해체주의적 특성

1. 상호 텍스트성

슈즈디자인에 있어서 텍스트란 용어는 독자적인 기호체계로서 의미를 가지는 건축 및 의상

30) 양세은(1992),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 언어적 개념과 실내 환경 디자인에의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0-13.

분야와 비슷한 표현방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데리다’에 의한 상호 텍스트성이론에 맞게 정립해보면 크게 성의 해체, 소재의 혼재, 용도의 해체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먼저 남성슈즈와 여성슈즈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경계를 허물어 혼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끈을 묶어 착용하는 남성전유물의 대표적 정장스타일인 옥스퍼드 슈즈를 여성정장에 착용하는 경우, 여성슈즈 장식에 자주 등장하는 리본이나 꽃 장식이 남성슈즈에 나타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림1은 옥스퍼드 슈즈로서 흰색과 핑크색의 스트라이프 어퍼(upper)³¹⁾에 큰 리본을 이용한 슈레이스 장식을 하여 옥스퍼드화의 남성성을 해체하는 디자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 2006 S/S
Dolce & Gabbana



<그림 2> 2006 S/S,
Prada



<그림 3> 2007 S/S
Alexander McQueen

두 번째로 서로 상반되는 소재와 장식적 아이템을 혼합시켜 다중 해석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경우로서 2006년 프라다의 S/S 콜렉션에서 선보인 나무로 만든 웻지힐과 여성스러움이 가득한 노란색 고급 양가죽으로 제작된 메리제인 슈즈(그림2)는 서로 상반된 소재의 혼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여기에 매치시킨 흰색 타이즈 역시 혼성소재의 단면을 제시하는 디자인이라 하겠다. 2005년 알렉산더 맥퀸의 앵클스트랩샌들(그림3참조) 디자인의 조형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불규칙한 라인을 이용해 작거나 크게 표현된 리본 코사지와 플라스틱 어퍼(갑피) 재료의 혼재를 통한 상호텍스트성 해체주의 디자인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세번째로 T(Time).P(Place).O(Occasion).의 시간성, 공간성, 목적성을 인용하는 사례로서 보온을 목적으로 착용되어지는 겨울 아이템 부츠를 여름 의상과 착용함으로써 용도와 시간의 목적성에 위배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그림4는 펌프스와 레이스하프 부츠를 함께 혼합한 디자인에 토오픈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핑크색상 역시 슈즈 디자인의 경계선을 허물어 다중 해석의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경우라 하겠다.

31) 어퍼(upper)는 신발의 구성상 윗부분을 이르는 것으로 갑피라고도 한다.



<그림 4> 2008 S/S Prada



<그림 5> 2006 S/S Prada



<그림 6> 2006 S/S Jean Paul Gaultier



<그림 7> 2008 S/S Prada



<그림 8> 2008 S/S Alexander McQueen



<그림 9> 2007 S/S Alexander McQueen

2. 차연

슈즈 디자인에서 나타난 차연의 조형적인 특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고 바랜 듯한 흔적의 차연, 고대와 현대, 동양과 서양을 넘나드는 디자인요소를 접목시킨 형태를 가진다. 그림.5는 오랜 세월동안 신어왔던 느낌을 주는 닳은 소재와 색상 및 발목부위의 헤어진 자국 등을 담고 있는 복싱슈즈이며, 그림6은 동양적 디자인요소가 강한 뾰족하고 둥글게 말려 올라간 신발의 앞코와 골드와 레드 색상 조합에 스틸레토힐을 조화시킨 슬링백 슈즈디자인의 사례이다. 그림7은 동양적 이미지와 함께 로마시대의 느낌을 함께 보여주는 오픈 토 형식의 부츠이며, 그림8은 일본의 게다를 연상시키는 슈즈디자인이다. 그림9는 히피적 이미지와 재료를 이용한 차연의 슈즈디자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시도와 묘한 분위기로 새로운 시대적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적 특성을 보이며, 이는 과거의 복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조명한 시간과 공간의 차연을 통해 미래적인 미를 창조하고 있다.

3. Dis · De 의 탈현상

슈즈디자인에 적용되는 탈현상적 해체주의의 특성은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과 분열붕괴로 나눌 수 있으나 건축과 의상처럼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검증하기에는 그 경계가 모호한 슈즈디자인의 특성에 따라 본 장에서는 탈현상이 적용된 슈즈디자인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통한 탈현상주의적 슈즈디자인의 특성을 제시하고자한다.

전통적 미의 개념을 해체하고 불확정적 위계 구조 하에 미의 폭이 확대된 해체주의와 일치하는 탈구성적, 탈중심적 형태의 슈즈디자인은 기존의 슈즈가 가지는 규칙성을 파괴하고 불완전한 형태로서 그 기능성을 상실한 것조차도 수용시키며 기본적인 구성을 파괴한 탈구성의 형태와 인위적이고 역설적으로 왜곡한 탈구성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으며 슈즈의 구성 중심이 기울거나 비틀려 제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Prada, 2008 F/W



<그림 11>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 12> Prada, 2008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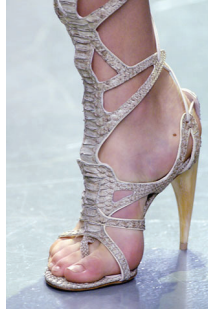
특히 분해적인 디자인과 불연속적인 질감 및 형태 실루엣 표현의 경우 연속성이 해체되어 인위적으로 손상되고 파괴되어 나타난 불연속의 슈즈 디자인특성을 지니며 이질적인 디자인 형태와 질감을 의도적인 조합을 통해 해체주의적 탈현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10부터 그림17은 의도적인 분해와 극단적인 대비 및 붕괴된 탈현상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슈즈디자인사례로서 부조화스러운 디자인 결합과 일체성을 배제시킨 특징을 갖는다. 그림10은 앵클부츠의 굽을 과도하게 구성하여 기존의 굽의 개념을 해체하였으며, X자 앵클 스트랩슈즈인 그림11은 어퍼와 굽과 스트랩 모두가 기존의 틀을 해체하고 기울어져 비대칭과 탈중심적 해체경향을 보이는 슈즈디자인의 사례이다. 그림12 또한 기존의 샌들 형태를 파괴하고 기이한 굽과 불규칙한 접힘 장식을 응용한 발등과 발뒤꿈치 및 굽 장식을 통해 탈현상의 슈즈디자인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3, 그림14는 롱부츠에 과도한 슬래시 및 노출을 시도함으로써 분열과 붕괴의 탈현상적 특성을 갖는 핑크적 파괴적 형태의 슈즈디자인의

사례이다. 특히 그림15는 스틸레토힐에 대한 해체와 어퍼의 변형을 통해 슈즈디자인의 탈현상적 해체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그림 13> 2008 F/W
Alexander McQueen



<그림 14> 2006 S/S
Alexander McQue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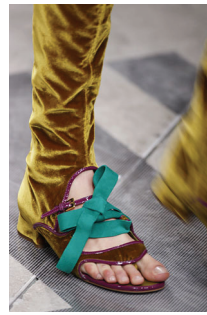
<그림 15>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 16> 2007 S/S
Christian Dior



<그림 17> 2007 S/S
Christian Lacroix



<그림 18> 2008 F/W,
Prada

한편 해체적 슈즈디자인 특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 차연 및 탈현상이 슈즈라는 하나의 아이템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를 지적하는 바이다. 그림16은 부츠와 스니커즈가 결합된 상태로서 용도의 혼재를 보이는 상호텍스트적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탈구성적 탈중심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래된 느낌의 흔적을 적용한 차연의 해체를 보이는 사례이다. 그림17의 T스트랩 슈즈 역시 굽의 탈현상적인 파괴적 해체와 함께 동양적 요소를 가진 수술 장식을 이용해 차연의 해체성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 그림18의 경우에는 샌들과 롱부츠의 결합을 통해 상호텍스트적 특성을 내포하며 그와 동시에 비구성적인 노출을 유도하는 탈구성적 패턴과 리본장식 등을 통해 탈현상적 해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건축이나 의상분야와는 달리 슈즈디자인의 조형적 구성 요소가 슈즈라는 하나의 아이템 안에 혼재되기 쉬운 특성을 지닌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반영한 슈즈분야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있는 해체주의적 슈즈디자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 관련서적 및 선행연구, 인터넷 자료 등을 통해 해체주의의 일반적인 개념과 해체주의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2001년부터 최근 2008년까지의 컬렉션에 발표된 슈즈작품을 중심으로 해체주의 양식이 반영된 슈즈디자인의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슈즈디자인 분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특성을 상호 텍스트성, 차연, 탈현상의 3가지 양식에 근거하여 디자인 원리를 바탕으로 그 표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서 슈즈디자인 분야의 해체주의적 양식을 응용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다채로운 디자인 개발 및 전개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해체주의는 서양철학의 뿌리 깊은 전통인 이분법적 이론에 대항하는 탈구조주의적 현상으로서 해체주의 패션과 건축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은 이질적 소재의 혼용과 스타일 및 이미지의 혼용, 미술, 가구, 건축, 패션 등의 서로 다른 영역간의 혼용 및 초월 등의 양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의상에서의 상호텍스트성 성의 해체, 소재혼용, 다원적 민족주의, T.P.O의 모호성 등이 표현되었다.

차연(Diffrance)이란 공간적인 차이의 개념에 시간적 개념인 지연의 개념이 도입되어 시·공간 개념의 해체 등을 의미하며 의상에 나타난 차연의 사례로는 그런지룩, 거지패션, 낡고 빈곤한 청바지 등이 있다. Dis·De의 탈현상은 Dis나 De를 접두어로 사용해 탈현상으로서의 해체주의 디자인 양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탈현상을 나타내기 위한 디자인의 원리로는 크게 탈구성, 탈중심, 불연속, 분열·붕괴의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의상에 나타난 탈구성적 표현은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해체된 경우로서 퇴폐적미의식을 드러내는 분열·붕괴의 양식이 적용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현대 슈즈 디자인에서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을 바탕으로 디자인 원리와 특성에 대한 조형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해체주의가 나타난 슈즈 디자인은 다채롭고 장식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장식적 소재의 개발과 개성 있는 표현 양상이 특징이며, 서로 간의 이질적인 결합과 극단적인 대비를 통해 상호 텍스트적인 표현 양상을 표현할 수 있다.

둘째, 20세기 후반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슈즈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체주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복식을 결합시키기도 하고 과거의 복식을 현대의 양식으로 재조명한 시·공간의 차연을 통해 복고적이면서 혼합적인 새로운 미래적 미의식을 창조할 수 있다.

셋째, 현대의 탈중심과 탈구성이 나타난 해체주의적 슈즈는 대체적으로 기본적 형태에서 벗어난 비대칭적 구조나 파괴적 또는 일정한 방향성을 무시한 탈구성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연속은 주로 이질적인 질감이나 색채와 장식적으로 부조화스러운 디자인 결합을 통

해 일체성을 배제시키거나, 슈즈 디자인의 형태와 장식을 더욱 비대칭적이고 도발적, 파괴적으로 표현해 해체주의의 탈구성적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해체적 슈즈디자인 특성으로 제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해체주의의 상호텍스트성, 차연 및 탈현상이 슈즈라는 하나의 아이템 속에 동시에 존재하는 경향이 다. 이는 건축이나 의상분야와는 달리 슈즈디자인의 조형적 구성요소가 슈즈라는 하나의 아이템 안에 혼재되기 쉬운 특성을 지닌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반영한 슈즈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해체주의의 확장된 미와 시·공간적 경계를 초월한 디자인의 표현 양상을 연구해 현대의 슈즈 디자인에 다변화적 미의식의 확대 및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사조와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넓힘으로서 디자인의 다양성 확대를 촉구하는 일은 슈즈디자인 발전에 매우 큰 의미를 제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관련 자료정리 및 통계를 이용해 디자이너별, 시대별 해체주의의 출현 빈도에 관한 양적연구를 제언하며 이러한 열린 사고의 틀 속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확대 시킬 수 있는 슈즈디자인분야의 연구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김경인(2007), “해체주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현대 헤어 디자인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13(2), pp.732-740.
- 김동욱(1991), 포스트모더니즘 이론, 민음사.
- 김성곤 편(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민음사.
- 김성복(1994), 패션디자인과 해체주의,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4.
- 김소영·이병화(2006), “패션사진에 나타난 해체적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pp.35-47.
- 김주영·양숙희(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외부로부터의 해체 현상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8), pp.1261-1274.
- 김주현·권미정·이순자(1999), “현대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표현과 그 수용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4), pp.80-98.
- 김지연(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 연구-건축과 복식의 비교,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전혜정(1997),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연구: 건축과 복식의 비교,” 복식 32, pp.293-312.

- 김혜정(1998), 현대 건축형태 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정·임영자(1998), “현대 건축의 형태구성과 해체주의 패션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0, pp.137-150.
- 김형효(1993),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 노선옥(1999), “조형요소별로 분석한 해체주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5(1), pp.209-229.
- 박선영·남윤자(2003), “포스트모더니즘 복식 칼라에 나타난 해체주의적 경향,” 의류산업학회지 5(3), pp.227-234.
- 양세은(1992), 해체주의 관점에서 보는 조형 언어적 개념과 실내 환경 디자인에의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선영(2000), 해체주의 탈구성적 접근을 통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수진(1999), 복식 양식의 보편성과 특수성-20세기 패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병호 외(1992), 후기구조주의, 고려원.
- 윤소정(1996), 해체주의 복식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래(1989), 해체주의란 무엇인가, 교보문고.
- 이영재(2000), “1990년대 스트리트패션에 나타나 해체주의 경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열·구자명(2005), “해체주의를 응용한 메이크업 일러스트레이션,” 한국의류학회지 29(3/4), pp.414-424.
- 이지윤(1994), “조형주의 공간에 구성원리 및 디자인 특성과 조형적 접근 방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교(1991), 구성주의와 해체주의 건축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영(1999), 현대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해체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옥·추미경·홍정화(2007), “장 폴 고티에의 작품에 표현된 해체주의 경향,” 복식문화연구 15(2), pp.326-338.
- 최영옥(2001), “장 폴 고티에 작품에 나타난 내적 해체현상,” 복식문화연구 9(4), pp.574-591.
- 최진희(2008), “해체주의 건축 이론과 색채표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2(1), pp.23-36.
- Eisenman, Peter, 이호정 역(1998), *Conceptual Architecture*, 집문사.
- Jürgen Habermas(1994),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서울: 문예출판사.
- Martine, Richar and Harold Koda, *Orientalism*,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1994.
- Silverman, Hugh. J., *Derrida and Deconstruction*, London: Routledge, 1989.
- www.style.com